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8월 1일(화) 16시: 사무국 주간회의 및 회원의 날 기획회의

■ 연구원 소식

“화양연화, 꽃보다 아름다운 순간을 나눕니다”

2024년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달력 사진 공모전

우리 연구원에서는 회원의 기억과 이야기가 담긴 달력 제작을 통한 회원 공감대 형성 및 참여 확대를 위해 「2024년 달력사진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회원님의 앨범 속에 잠들어 있는 오래된 사진을 꺼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누리집 공지사항과 개별 안내드린 SNS를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연구원 회원의 날 및 개원 17주년 기념행사 안내 (9월 2일 ~ 9월 3일)



이오당 야경

2006년 9월 2일 공식적으로 대문을 열었던 우리 연구원의 열일곱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일(土)~9월 3일(日) <1박 2일>"**에 걸쳐 회원의 날과 개원 17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회원의 날은 장소는 **"전주한옥마을 내 이오당"**입니다.

이오당은 전주 한옥마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 자원을 이어 받은 전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고향집 뒷마루에 앉은 편안함으로 하룻밤을 보내며 새로운 기운을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원 기념 회원의 날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추후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연구원에서 참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구원 유선전화 (063-286-3005)나 사무국장(010-6275-0409)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 역사속의 오늘

'서른 셋 임산부, 일제의 품에 폭탄을 던지다 (1920년 8월 3일)

1919년 3·1 운동 후 104년이 지났지만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생각하면 유관순 열사 이외에 선뜻 떠오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친일파는 “을사5적”만 떠오르게 학습 받은 우리네 역사 교육이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약상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기에는 너무도 큰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36년간 수많은 여성 항일투사들이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부로부터 훈장과 포상을 받은 여성 독립운동가는 전체 독립유공자의 5%도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예전과 달리 2015년 제작된 영화 <암살>의 안옥윤(전지현 분)이나 2016년 영화<밀정>의 연계순(한지민 분)이 근래 대중에 회자되며 피동적이고 주변적 성격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이뤄지고 있으니 그나마 나은 일이다.

오늘 이야기 될 주인공은 우리가 쉽게 듣지 못했던 한 여성 독립운동가이다. 1888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난 그는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당해 29일간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석방된 후 평양에 본부를 둔 대한애국부인회에 합류, 모금한 군자금을 상해임시정부로 전달하는 교통부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모금된 돈은 2400원. 쌀 한 가마에 1원 하던 시절이니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는 이처럼 중대한 일을 맡을 정도로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믿은 당차며 독립의지가 강한 인물이었다.

1920년 8월 당시, 미국 상하 의원단 100여 명이 동양 시찰차 중국에 들러 일본으로 가는 길에 조선(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정보를 입수한 대한광복군 총영은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해 총영 소속 10여 명의 청년들로 결사대를 꾸려 서울과 평양, 신의주의 경찰서 등을 폭파하는 거사를 계획한다. 미국의 의원단이 조선을 통과할 때 거사를 일으켜 한국의 민인들이 가진 독립에 대한 열망과 실천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당시 서른셋이었던 그는 유일한 여성 대원이었고 임신한 상태였다. 안타깝게도 그가 속한 제2대 2조의 평양경찰서 폭파는 폭탄의 불발로 실패하고 만다. 이에 다른 대원들은 황해도로 가 동양척식주식회사 폭파를 시도한다.

그러나 그는 임신한 몸이라 동행하지 못하고 혼자 남아 폭파 기회를 노리다가 한층 강화된 감시와 경비로 뜻이 좌절되고 만다. 그리고 도피 7개월 째 무렵 출산한 지 보름도 되지 않은 몸으로 체포되고 말았다.

안경신이 체포된 것은 도피생활 7개월째인 이듬해 1921년 3월 20일. 피신처에서 아기를 낳은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평양경찰서 고등계 형사들에게 체포된 그는 원산을 거쳐 3월 26일 평양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이송되었다.

품에는 태어난 지 12일 정도 된 핏덩이가 안겨 있었다. (...)여성 독립운동가 가운데는 남자현의 사처럼 항일무장투쟁에 나선 이가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폭탄 투척 거사와 같은, 남성의 열사들도 함부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에 나선 여성 투사는 안경신이 유일하다. 거사 직후 언론은 그를 두고 '여자 폭탄범'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의 동지 최매지는 이렇게 증언했다.

"독립투쟁가가 많이 있고 여성 투쟁가도 수없이 있다. 그러나 안경신같이 시종일관 무력적 투쟁에 앞장서서 강렬한 폭음과 함께 살고 죽겠다는 야멸찬 친구는 처음 보았다."

- 정운현, 2016, 인문서원 <조선의 딸, 총을 들다>에서 -

그는 함경남도 이원군에서 체포 불과 열이틀 전에 출산한 몸이었으나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10년형을 확정받았다. 그가 체포되자 모친은 충격으로 사망했고 출생 직후 감옥에서 함께 지낸 아들은 감옥에서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

1927년 출소 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마지막으로 세상에 사자후를 토한 후 완전히 모습을 감췄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자식은 병신이니 어느 것이 서럽지 않겠습니까마는 동지의 비명을 듣고는 눈물이 앞을 가리어 세상이 모두 원수같이 생각됩니다."

1920년 8월 3일, 치마 속에 폭탄을 숨겨 조국으로 돌아 온 안경신이 일제의 품에 조국 독립의 혼을 던졌다.